불자 세상보기

독서삼매는 폭염도 이긴다



김형중
동대부여중 교장

요즘 더위가 기승을 부리는데 장난이 아니다. 더워도 너무 덥다. 우리만 더운 것이 아니다. 지구촌 전체가 더위와의 전쟁이다. 세계기상기구는 "올해가 기상관측 사상 가장 더운 해로 예상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중동과 인도가 50도(쿠웨이트가 54도), 중국이 40도이고, 일본 · 미국 · 우리나라도 32도에서 38도이다. 기상청은 연일 전국 폭염특보를 내리고, 내일이 더위의 절정이라고 한다. 어제 대구는 36도를 기록했다.

도심 상가는 문을 열고 냉방문을 닫아두면 외국인 관광객이 기웃거리다 그냥 가버린다고 한다. 손님이 줄었다고 한다. 그렇지 않아도 경기가 좋지 않아 어려운데 최악의 상태라고 하소연하고 있다.

지구 온난화나 슈퍼 엘리뇨를 한탄만 할 일이 아니다. 또 내년에도 더위는 계속될 것이고 새로운 기록을 갱신할 것이다. 모든 종교가 지옥에 대한 묘사를 뜨거운 불속에서 받는 고통으로 묘사하고 있다. 초열지옥, 화탕지옥, 폭염지옥이다. 하나뿐인 지구를 보호하지 않고 석유와 석탄으로 오염시킨 인과응보이요, 자승자박이다.

우리 집안에 "불길 속에서 연꽃이 피는 도리가 있다"는 말을 생각하며 어제 한낮에 건대전철역 앞을 지나가는데, 젊은 청년이 전자기타를 켜고 팝송을 부르는데 그 모습이 무아지경이어서 한참을 바라보았다. 처음엔 '젊은 놈이 더위를 먹고 저러나' 라고 생각했다가 '저 청년이 10년 후에 방송국에 나와서 노래를 부르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다.

불현듯 20년 전 산동성 제남시 산동대학교 기숙사에서 7, 8월 한 달 동안 40도가 넘는 더위 속에서 고군분투했던 기억이 떠올랐다. 우리는 인생의 중대한 기로에서 자신의 한계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이 고비를 잘 극복하면 인생이 성공하고 실패하면 무너진다.

대학박사생전형위원회에서 나를 박사연구생으로 특별입학시킬 것인가에 대하여 회의를 하는데 한 달 동안 진행하였다. 그 동안 주래상 박사도사교수가 준 '중국 문예미학' 책을 읽고 요약하면서 입학시험을 준비했다. 제남은 중국에서 가장 더운 4대 가마솥(난징 · 충칭 · 우창 · 제남)이다. 우리나라 대구처럼 분지이기 때문에 밤낮없이 끓는다. 열대야 때문에 밤에 잠을 잘 수 없다. 가만히 앉아 있어도 땀이 주룩주룩 흐른다. 자다가 일어나 하루 밤에 4번 샤워를 해야 했다. 한 달 만에 10킬로그램의 몸무게가 빠졌다. 당시 전력 사정이 열악하여 냉방이 있는 곳은 호텔뿐이다.

나에게 40도의 더위를 견뎌내는 일은 하루하루가 한계상황이요, 고행이요 수행이다. 아내와 두 아들의 모습이 떠올랐다. '여기서 이대로 물러나 빈손으로 집으로 돌아갈 수는 없다.' 두려움과 무기력에 빠지게 될 때마다 〈금강경〉에 나오는 석가모니의 전신인 인욕선인(忍辱仙人)의 가르침으로 버텨내고 기다렸고 이겨냈다.

가마솥처럼 끓는 제남에도 피서정토가 있었다. 천불산 만불동 동굴이다. 중국 4대동굴의 불상을 재현해 놓은 거대한 동굴이다. 노나라와 제나라 때 전쟁용 동굴이라고 한다. 동국 입구를 철문으로 닫으면 수소폭탄이 터져도 끄떡없는 요새동굴이다. 나는 이곳을 알게 된 후에는 매일 아침에 택시를 타고 와서 아무도 없는 동굴 법당서 목탁에 맞춰 '반야심경' 을 독경하고 앉아서 명상을 했다. 앉아서 선정 모양만 했지 만 가지 상념이 머리 속에서 교차했다.

현재 내가 할 수 있는 인욕 공능(功能)의 힘은 제남에서의 40도 폭염 속에서 한 달 동안 체험한 '중국 문예미학' 의 독서와 만불동 법당에서 했던 참선 수행의 공덕이다. 필자 인생에서 가장 소중했던 시간이다.

폭염을 피해서 신선으로 사는 길은 가족과 함께 도심을 떠나 산사를 찾는 템플스테이이다. 더위도 피하고 마음도 다스리는 일석이조이다. 또 다른 하나는 역시 여름 독서이다. 실제로 사람들이 시원한 가을에는 책을 별로 읽지 않고, 더운 여름에 집에 틀어박혀 독서를 많이 한다고 한다. 감옥에서 독서도 있고, 폭염을 피하는 독서가 있다. 밖으로 날뛰면 더위에 맞아 죽는다.

기자 칼럼

당사자 없는 위안부 재단 성공할까



신성민
취재부 차장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을 위한 '화해 · 치유재단' 이 7월 28일 공식 출범했다. 사실상 출범을 강행한 것이다. 재단 설립 주도한 정부는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대부분이 설립에 찬성했다고 밝혔지만, 일부 피해자 할머니와 나눔의 집, 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이하 정대협) 등 시민단체가 재단 출범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당장, 재단 출범 첫날부터가 순탄치 않다. 재단 사무실 주변에서는 반대 시위가 벌어졌고, 김태현 재단 이사장은 '캡사이신 공격' 을 받기까지 했다. 여기에 일본 정부가 재단에 출연하기로 한 10억 엔(한화 110억 원)과 소녀상 이전을 계속 연계하려 한다는 정황까지 흘러나오고 있다.

재단 설립 추진 과정에서도 여러 문제가 있었다. 대표적인 사례가 일부 언론에 보도된 대로 안신권 나눔의집 소장을 '화해 · 치유재단' 이사직에 제안한 것이다. 나눔의집은 불교계가 운영하는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쉼터다.

보도에 따르면 김태현 재단설립준비위원회 위원장과 정병원 외교부 동북아국장, 여가부 직원 등이 함께 찾아가 안 소장을 먼저 면담했고, 그후 정 국장이 안 소장과 따로 단둘이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제안이 오갔다고 한다.

하지만, 안 소장은 "할머니들이 강하게 반발하시고 있는데 어떻게 배반하고 정부 재단에 들어갈 수 있겠냐" 라고 제안에 거부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거칠게 말하자면 피해 당사자가 배제된 채 진행된 한일 합의는 애초에 이뤄져서는 안될 것들이었다. 일본이 제안한 피해 재단 설립기금 10억 엔 역시 실패한 일본의 '여성을 위한 아시아 평화 국민기금' 이 오마쥬된다.

일본의 여성학자 우에노 치즈코는 자신의 저서 〈위안부를 둘러싼 기억의 정치학〉에서 일본 국민기금에 대해 비판적 견해를 내놨다. 비판의 이유는 크게 세 가지다. 국민 기금의 공적 성격이 애매해 책임 주체가 명확치 않고, 기금이 국가 보상을 하지 않기 위한 구실로 사용될 우려가 크다는 것이다. 또한 '국민 전체의 책임' 이라는 말로 다시 한번 무책임 체제가 재생산된다는 것을 들었다.

우에노 치즈코는 위안부 문제가 쟁점이 된 1995년 유엔 베이징 여성회의가 열리기 전 설립된 국민기금이 국제사회를 향한 '일본의 정치적 퍼포먼스' 라고 강하게 비판한다. 그러면서 "국가가 저지른 죄에 대해서는 국가가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래서 일까. 일본의 꼼수는 통하지 않았다. 피해자 대부분이 일본의 기금 수령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우에노 치즈코가 비판한 일본 국민기금과 지금의 한국 위안부 재단은 마치 데칼코마니처럼 겹친다. 애초 한일 합의에서 일본이 출연해 만들기로 한 재단도 책임 주체가 불분명하다. 모양새부터가 "일단 사과금을 줄테니 당신들이 알아서 하세요"에 국한된다. 무엇보다 일본 정부는 위안부에 대해서는 공식적인 사과를 한 적이 없다. 도리어 10억엔을 빌미로 소녀상 이전 카드를 들었다 놨다 하고 있다. 여기에 아직 생존한 피해자 할머니들은 위안부 재단에 극렬한 거부감을 보이고 있다.

우에노 치즈코가 위안부 문제를 지속적으로 연구한 이유는 "피해 여성들에게 반세기 동안 침묵을 강요한 현재 진행형의 가해에 자신 또한 책임이 있기 때문"이라고 책을 통해 밝힌 바 있다. 그러면서 "전쟁의 대가는 아주 비싸다는 것을 일본인은 배워야 한다"고 경고한다.

여기서 해결점은 보인다. 일본 정부는 전쟁 당시부터 이후에도 침묵의 삶을 살아야 했던 그녀들에게 가해의 책임과 사과를 해야 한다. 그리고 한국 정부는 위안부 재단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 할머니들이 마지막까지 존엄을 지키고 명예 회복을 이룰 수 있게 함께 돕는 것이 우선 과제다. 기름진 말의 성찬으로 얼룩질 재단 출범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社說

만해 대상 20돌에 부쳐

만해 대상이 올해로 20돌을 맞았다. 만해 대상은 이름처럼 만해 스님의 애민 정신과 생명 · 평화 사상을 선양하기 위해 만해사상실천선양회가 제정한 상이다. 백담사 회주 무산 오현 스님의 원력으로 출발한 만해 대상은 1997년 평화상, 실천상, 학술상, 포교상, 예술상 5가지 분야에 대한 시상으로 시작됐다.

이후 20년을 지나오면서 명실상부한 한국을 대표하는 '상(賞)' 이 됐다. 해를 거듭할수록 내용과 규모는 성장했고, 특히 평화부문은 김대중 前 대통령을 비롯해 넬슨 만델라, 달라이 라마 등을 잇달아 수상자로 선정하며 세계적 상으로 위상을 높였다.

20년 동안 105명(곳) 수상자 및 단체가 나왔고, 수상자 배출 국가는 한국을 포함해 26곳에 이른다. 이중 외국인 수상자(단체)는 36명(곳)이다. 노벨상 수상자 6명이 만해 대상을 받았다.

모범이 되는 인물을 선정해 만해 대상을 수여하는 것은 만해 사상을 선양하기 위해서다. 만해 스님은 자신의 일생을 바쳐 자유와 평등, 평화를 외쳤다. 대부분의 상이 그렇지만, 수상자를 통해 우리는 '나 역시 이렇게 살아야 한다' 는 희망을 갖는다.

〈논어〉는 '어진 이를 만나면 그를 본받고자 노력하고, 어질지 못한 자를 만나면 자기 반성의 대상으로 삼아라(見賢思齊焉 見不賢而內自省也)' 라고 조언한다. 실제, 남명 조식 선생은 공자와 주자의 초상화를 그려놓고 매일 인사드리면서 현인들을 닮고자 노력했다.

만해 사상을 빛내고 있는 우리 사회, 나아가 지구촌의 현자들에게 우리는 삶의 지남을 배워야 한다. 앞으로도 만해 대상은 현자들을 찾아 알려야 한다. 앞으로도 꾸준히. 이것이 청년기를 맞는 만해 대상이 나가야 할 길이다.

명상산업 발달, 불교엔 기회다

최근 국내 굴지의 대기업들이 앞다투어 명상산업에 뛰어들고 있다. 삼성은 영덕에 2017년 개원을 목표로 1000억원을 투입해 명상연수원을 건립하고 있으며, 동화그룹, 대웅제약, 동국산업 등도 이미 명상관련 시설을 짓거나 기존 건물을 활용해 명상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기업들의 이런 행보를 두고 기존 임직원 스트레스 해소 차원에서 명상을 하나의 산업으로 인식했다는 평가가 흘러 나온다.

불교계에서는 기업들의 명상산업 투자가 저변확대로 이어질 것이란 기대를 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기대에 비해 그 준비는 미흡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지적이다.

인프라 부분은 이미 기업과 불교계가 비교할 수 없는 격차를 보인다. 2008년 한국문화연수원 개원 이후 각 사찰에서 템플스테이에 기대 명상교육 등을 진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는 기업 측 명상지도자들에 대한 교육이다. 불교에서 명상을 부처님 가르침에 따른 마음공부로 전하는데 반해 아직 일반 기업들의 접근은 효과에만 머무르고 있다. 불교계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 지난해 4월 한국명상지도자협회를 발족했다. 협회 이사장 혜거 스님은 "불교계가 명상문화 보급과 함께 불교 가르침에 맞는 심화된 명상을 알리는데도 앞장 서야 한다"고 과제를 밝혔다.

세계적인 명상지도자 구글의 차드 멍탄은 방한에서 유튜브 등 뉴미디어와의 접목, 그리고 과학기술과의 만남 등 불교계가 적극적으로 명상문화 발전에 노력해야 함을 역설했다. 사회에서 명상은 이제 산업화 단계로 접어들고 있다. 불교계의 꾸준한 발전과 노력이 없다면 미래가 장밋빛 만은 아닐 것이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발행인 : 서혜원 편집인 : 박혜월 인쇄인 : 배성한
(우)03150 서울특별시 종로구 우정국로 45-13, 2층(수송동)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53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6 FAX (02)737-0696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현불샵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대 구 지 사 : (053)768-8008
광주전남지사 : (062)512-5003
전 북 지 사 : (063)910-8977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영 주 지 국 : (054)634-3429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불자와 사찰간의
다양한 소식, 뉴스, 혜택 등
모든 정보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불교 대표 어플리케이션



절로
사찰의 다양한 소식을
절로에서 받아보세요!

불교 대표
어플리케이션
절로 다운로드
Google Play (안드로이드용)
App Store (아이폰용)
"절로"
검색 후 다운로드

절로 문의전화
불자/신도 무료이용
사찰/단체 이용문의
☎ 1644 - 9108

하기책자 5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命
(명)
글쓴이 : 혜천법사

"타고난 자신의 운명(運命)인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키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책자 내용
* 사주명리학(사주팔자술)이란 무엇인가?
* 사주팔자(四柱八字)를 뛰어 넘을 수 있는 비책(秘策)이 있다
* 한해의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킬수 있는 방법(方法)은 무엇인가?
* 부록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천도의 중요성"

※이 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20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전생의 빚을 소멸시켜 자신의 운명을 바뀌게 하는"

생전예수재기도의 중요성과 그 성취효과

글쓴이 : 혜천법사

책 자 안 내
① 생전예수재는 "왜" 필히 지내야만 하는가?
② 생전예수재 신청 및 집에서 기도하는 방법
③ 생전예수재 기도후 일어난 영험사례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혜천법사

책 자 안 내
①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②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③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④ 팔괘의 상징에 대한 설명
⑤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⑥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⑦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⑧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⑨ 팔괘만다라 액자의 신비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① 풍수지리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② 조상님의 산소자리는 왜 명당이어야 하는가?
③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하게 하는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④ 이장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⑤ 산소(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⑥ 본회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⑦ 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난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오포로 345-4 성지빌딩
전화 031)768-8414~6, Fax 768-8413